FX Market Daily

2024-08-09

전일동향

전일대비 0.40원 상승한 1,377.20원에 마감

8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0.40원 상승한 1,377.2원에 마감했다.
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.80원 하락한 1,376.0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장 초반 국내증시 하락과 외인들의 순매도가 이어지며 급등했다. 오후장에서 환율은 달러지수 방향성 부재와 대기하던 네고물량 유입에 1,370원대로 후퇴하며 1,377.2원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4.50원이었다.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41.33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달러	1376.00	1379.70	1374.70	1377.20	1377.70
엔화	938.48	948.05	933.97	934.95	-
유로화	1503.74	1507.32	1499.51	1503.20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1.86	-7.17	-14.92	-26.58
결제환율(수입)	-1.36	-6.24	-12.96	-23.12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

금일 전망

위험선호 회복에...1,37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6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77.20) 대비 3.05원 하락한 1,371.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금일 환율은 미 고용시장 냉각 우려 완화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초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3.3만명으로 집계되며 예상치(24.1만명)을 큰 폭으로 하회했다. 이에 지난주 부진했던 7월 고용지표로 촉발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며 간밤 나스닥지수가 2.68% 상승하는 등 뉴욕증시 주요 지표는 모두 상승마감했다. 위험선호 회복에 따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이 기대되는 점은 금일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아울러 시장에서 캐리트레이드 청산이 대략 75% 소화된 것으로 보아 엔화가 점진적으로 강세를 보일 경우 환율 하락 분위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.
다만, 수입업체 결제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69.33 ~ 1377.67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5167.34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.05원↓
	■ 美 다우지수 : 39446.49, +683.04p(+1.76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89.59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3976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